

사회과 연수의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 요인 고찰 - 배심원 토론의 교실 정착 사례를 중심으로 -

윤 상 균
신도고등학교

I. 서론

위기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새 길은 변화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사회과에서 위기는 학교 현장, 즉 교실 수업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새 길은 교실 수업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산출되고 있음에도 왜 교실 수업은 변화가 없는가? 학교 현장에서는 필수 연 60시간 또는 120시간 이상 직무연수 이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왜 변화가 없는가? 대학원에서 학업을 하는 교사는 많은 연구를 접하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교사는 많은 연수를 이수한다. 그런데 왜 현장은 변화가 없는가?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하여 그 원인을 연구 또는 연수 자체의 현장 정착 가능성이 낮다는데 두고자 한다. 교사는 본능적으로 어떤 연구나 연수를 접하면, ‘아 이것은 현장에선 어렵겠구나’ 또는 ‘어 이것을 해 볼만 하겠는데’ 중의 하나로 간단하게 판정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장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연구와 연수가 교사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장에서 실시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정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평상시의 교실 수업에서 적용 가능하다고 판정하여 실제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구나 연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또는 많은 연구와 연수를 학교 현장에서는 적용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내린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러한 시각은 일선에서 교육을 실행하는 교사에게 관심을 둔다. 물론 이러한 작업의 결과는 연구나 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교육과정이든, 학교 교육과정이든 최종적으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담당 교사에 의해 실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각은 교육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특히 교육 문제를 개선하는데 매우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교육 문제의 진단과 개선책이 현장 교사로부터 나와야 교육의 변화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II. 왜 배심원 토론인가?

토론은 사회과에서 대표적인 수업 방법이다. 그러나 정착 사회과 교사가 본인의 교실 수업에서 토론을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하나는 배워야 할 내용

지식의 분량 관계로 시간 관계상 토론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교실에서 토론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전자는 논외로 하고 후자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좀 의외이다. 왜냐하면 토론과 관련된 도서, 연수, 연구들이 주변에 매우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정녕 그 많은 자료들이 모두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단 말인가? 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것을 직접 담당하여 실행하는 교사의 눈으로 판단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사의 자질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 또는 교사의 열정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장은 부족한 자질과 샐러리맨과 같은 교사들이 교육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교육의 개선도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교사—특별히 탁월한 능력도 없고, 뜨거운 열정도 없는—가 현실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수학습 방법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것이 가능한지 탐구해볼 만하다. 그것이 바로 토론 형식 중의 하나인 ‘배심원 토론’이다. 배심원 토론은 기존의 전형적인 토론 방식과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곧 대회 토론과 교실 토론의 차이에 기인한다(김주환, 2009). 대회 토론은 선발된 선수들 간의 경쟁이라면, 교실 토론은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수업이다. 이러한 큰 차이점이 형식으로 드러난 것이 배심원 역할의 설정이다. 교실 토론으로서의 배심원 토론은 대표토론자들 간의 토론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배심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수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Ⅲ. 배심원 토론 실시 사례

필자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서울의 일반고 2학년 경제 수업에서 최근에 2학기 수행평가로 7개 학급에서 배심원 토론을 실시하였다. 토론 주제는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가?’였다. 우선 토론 실시 1주일 전 역할 분담과 사전 안내를 한다. 사회자, 배심원장, 찬성팀 대표토론자들, 반대팀 대표토론자들, 그리고 나머지 배심원들. 각자 자신의 특성에 따라 역할을 신청한다. 넘치는 역할은 신청자들 간의 합의하에 결정한다. 대부분 가위바위보로 결정한다. 대표토론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배심원을 할 것인가에서 학생들의 성향이 갈린다. 즉 외향적이고 말을 잘하며 주관이 뚜렷한 학생들이 자의에 의해 또는 타의에 의해 대표토론자를 맡는다. 그 다음 사회자, 배심원장이 채워지고, 아무런 능동성을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청중(배심원)으로 남게 된다.

교실 수업의 전개는 처음 셋팅 단계에서 절반 이상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토론 수업의 첫 번째 성패 여부는 토론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골고루 배정되는 역할 분담에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교실 수업의 첫 번째 해결 과제는 학생들이 떠들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인데, 토론 수업에서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러한 일차적 과제부터 실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실패하고 나면, 다시는 시도할 생각을 않게 된다. 많은 학생들이 떠들고 다른 행동을 하는데 계속 수업을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배심원 토론은 학급 인원(약 30명)의 대다수(약 20명)를 차지하는 청중을 배심원이라는 역할 부여를 통해 토론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배심원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순하게 토론 중간에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줄 수

도 있고, 토론의 최종 승패를 결정하는 판단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배심원 역할의 다양성은 학교 특성 또는 학급 특성에 따라 교사가 적절히 결정하게 된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선 대표 토론자가 아닌 청중(배심원)들이 토론이 진행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본다는 것이다. 그것은 중간 질문 시간에 질문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중에 승패를 판정할 때 어느 쪽인가 표를 던져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토론 자체가 흥미롭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토론자들이 각양 각색이어서 말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내용이 그저 그런 사람, 매우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사람 등 다양하고, 또한 평소 학교 생활에서 보지 못하던 그럴 듯한 모습을 또는 우스꽝스런 모습들을 친구들에게서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제에 청중 자신이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담당 교사는 방점을 오히려 청중에게 둔다. 이것은 토론 대회가 아니라 교과 수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토론이라는 분야 자체가 소위 에이스들이 각 학급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활약상을 보게 되는 것이 수업이라는 틀 자체에서는 교육 실행자인 교사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그래서 대표 토론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심은 청중에게 가 있다.

또한 교실 수업, 나아가 학교 현장은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아니 평가에 어떤 조그마한 이상스러움이 있다면 금세 학생들의 반작용이 나타나고 학부모의 항의까지 일으키게 된다. 결국 토론 수업도 평가라는 실행과 어긋남이 없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래야 교사는 부담 없이 그것을 실행하게 된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사는 실행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다. 그런데 토론의 점수라는 것은 결국 발언이 주요 평가요소인데, 청중(배심원)에게도 발언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더구나 내성적이고 평소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스타일의 학생들이 대부분 청중에 포진해 있는데, 배심원 질문 시간에 평소 전혀 말도 않고 잘 어울리지도 않는, 소위 존재감 없는 학생이 배심원 발언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것은 필자가 이상(理想)으로 하는 사회과 수업의 모습이기도 한데, 그 이상이란, 어떤 목소리 큰 사람 몇몇이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매우 혐오하며, 모든 사람이 진리, 또는 사실 앞에 자신의 편견과 오류를 내려놓는 것이다. 배심원 토론 수업 시간에는 가장 존재감 없던 학생이 청중석에서 평소에 말 잘하던 대표 토론자의 발언의 허술함을 드러내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토론이 모두 끝나면 배심원장은 배심원(청중)들로부터 찬성팀의 잘한 점과 못한 점, 반대팀의 잘한 점과 못한 점에 대해 의견을 듣고 정리·요약하며, 또한 어느 쪽이 더 토론을 잘 했는지에 대해 배심원들이 표를 던지게 하여 최종 승패를 몇 대 몇 식으로 발표한다. 토론의 승패를 점수와 연결시키지 않을지라도 대표 토론자들은 신경을 많이 쓰는 눈치다. 수행평가 토론 주간이 지나면, 반 별로 어떤 반은 찬성 팀이 이겼다, 어떤 반은 반대 팀이 이겼다 등의 후기들이 학생들 간에 얘기되어지고, 담당 교사의 귀에도 들어온다.

필자는 배심원 토론을 연수를 통해 알게 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2번씩 강의식 수업만큼이나 편안하고 익숙하게 교실에서 실시하고 있다. 첫 해는 연수의 틀을 그대로 따라 했고, 이후 틀을 약간 수정하여 지금까지 큰 변동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아무런 부담이나 어려움이 없었다. 수정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토론 절차를 필자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식대로 바꾸었고, 또 하나는 반드시 수행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토론이 더욱 오고가는 맛이 있는 토론다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가능한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도록 바꾸었고, 후자는 어쨌든 전체 학생들이 토론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적절한 조치였다. 그러나 토론에 흥미를 보여 온 그동안의 학생들의 태도를 고려할 때, 점수와 관련 없이도 토론 자체를 흥미롭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필자는 처음에 인터넷으로 원격 연수를 들 때부터 ‘아 이것은 금방이라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즉시 실행했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나 연수는 이처럼 현장 교사에게 현실 실행 가능성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참고로 필자는 최근에 일련의 협동학습 연수를 재밌게 받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으나, 교실 현장에서 실행한 바는 없다. 우선 주 이유는 협동학습 기법들 자체는 좋지만, 무엇보다도 교과 내용과의 관련성이 너무 멀다는 인식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식을 가르쳐야 할 교사로서 이러한 방법을 교실 수업에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독서토론 관련 연수도 받았고,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 있다고 느꼈지만, 이것 또한 실제 수업에 사용한 적은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교과 내용과의 연관성을 갖출 수 있지만, 수업 내 독서라는 시간적 부담과 또는 학생들이 집에서 책을 제대로 읽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인 것 같다. 비유컨대, 이것들은 아직 천상의 것이다.

이와 달리 배심원 토론은 주제만 적절하게 설정하면, 일반적인 선입견과는 달리 큰 준비 없이 할 수 있다. 이것은 많은 준비를 한 대표 토론자를 당황케 하는 특별한 준비 없이 참석한 배심원이 발언이 가능한 것을 보면 증명이 된다. 배심원 토론은 결국 준비로서 하기 보다는 토론이 진행되면서 찬성 대표토론자와 반대 대표토론자, 그리고 배심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즉석에서도 실행 가능하다.¹⁾

그동안 실시된 배심원 토론을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 특징을 찾아본다면, 놀랍게도 교사로서 특별히 지도해 준 것이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순서만 지키면 되고,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고, 대표 토론자와 배심원들 간의 상호 질의응답을 통해 토론은 물 흐르듯 순식간에 진행된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 시간이 금방 갔어요’ 라는 반응을 종종 접한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독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배심원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렇다. 배심원이 순서 중간 중간에 질문을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승자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발언 횟수에 따라 점수를 부과함으로써 어느 한 사람이 발언을 독점한다는 것은 다른 조원의 점수 획득 기회를 막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사전에 각자의 발언 횟수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토론에 임한다. 그리고 많은 준비를 한 대표 토론자들이 별 준비 없이 앉아 있는 배심원들과의 질문 답변 시간에 대게 찢찢매는 위치에 선다는 것이다. 이것은 토론은 대표자들이 서로 간에 하고 배심원은 그것을 주의 관찰하여 보고 심사하는 기본 구도 설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대표 토론자는 소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고 배심원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다.

연말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게 되면 서술형에 꼭 나오는 답변이 있다. ‘선생님 스스로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어요’, ‘기억에 남아요’ 등이다. 심지어는 복도에서 만나면 ‘선생님 이렇게 진정한 교육이예요’ 라는 말을 하면서 지나가는 아이도 있다. 아이들도 아는 것이다. 뭐가 교육다운 것인지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을 학기별 1회씩, 1년에 두 번만 한다. 한 때 학기별 2회씩, 1년에 네 번 한 적이 있

1) 교육대학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사전 준비 없이 즉석에서 ‘세계화 찬반 배심원 토론’을 실시한 바가 있다. 처음엔 모두들 우리라고 생각했으나, 주어진 절차에 따라 양팀이 서로 주고 받고 중간에 배심원들의 질의응답과 작전타임 등을 거치며 주제에 대한 찬반 토론이 심도 있게 잘 이루어졌다.

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해가 부산스러웠다는 생각이 든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해진 교과 내용을 다루는데 밀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중간시험, 기말시험도 봐야 하는데.. 그래서 수행평가 비중을 늘리지 않는 이상, 다루어야 할 내용 지식을 줄이지 않는 이상, 토론 횟수를 늘릴 수 없다는 인식이 머릿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수업을 얘기하는 것이니, 연구 수업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매년 교과별로 올 해는 누가 연구수업의 짐을 질 것인가를 정한다. 몇 년을 잘 피하다가 한 해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해가 되었다. 그래서 배심원 토론 수업을 하였다. 연구 수업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늘 하듯이 학기 수행평가로서 진행되는 배심원 토론을 그냥 보여주었다. 수업을 지켜보신 선생님들은 다른 것보다 학생들의 활발한 모습이 좋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 평소 자신의 수업에서 봤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놀라워 하셨다. 여러 교육적 의미가 거기에 다 조금씩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연구수업은 준비해서 하는 것인가? 평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 말뜻은 연구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일회성을 위한 연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평상시 수업을 위한 연구여야 하고, 따라서 제대로 된 연구 수업이라면 평상시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IV. 교실 수업 적용 가능성 요인

첫째, 학생 통제가 되어야 한다. 어떤 멋진 수업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학생들이 집중하지 않고 산만해지면 수업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일반 토론 형식은 주로 공부 잘 하고 말 잘 하는 아이들만의 독무대인 경우가 되기 쉽다. 나머지 대다수의 학생들은 구경꾼일 뿐이고 아무런 역할도 없이 친구의 활약을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다. 이런 수업은 1차시도 주의 집중 시켜서 진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배심원 토론은 다수의 아이들에게 배심원이라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단순한 청중이 아닌 토론 전체를 평가하는 판단자의 역할을 하게 한다. 그것도 평소 자기보다 우월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분 좋은 시간이다.

배심원의 활용은 토론 평가뿐만 아니라 중간에 토론에 직접 참여시킬 수도 있다. 즉 대표토론자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 이처럼 학급 인원의 대다수인 배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잘 디자인하는 만큼 학생들은 주의 집중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배심원토론의 발전과 정착은 바로 이 부분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른 토론 형식에 비하여 배심원토론은 교실 전체 학생들이 토론에 주의 집중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본 디자인으로 인해 학생들이 특별히 산만해지거나 딴 짓을 하는 빈도가 줄어든다. 이처럼 1 대 다(多)로 교실에 선 교사로서 학생 통제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은 교사들이 실제 교실 수업에서 활용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둘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일반 토론은 선발된 선수 간의 시합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식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교실 수업에는 곤란하다. 수업이란 것은 아무리 학생들 간의 우열이 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한 명도 제외시킬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배심원 토론은 전체 학생들이 각자 하나씩의 역할을 갖고 있어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각자의 역할수행을 한다.

일부의 몇몇 학생들만이 주도하는 수업은 어떤 교사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러한 수업에 대해 교사들은 불편해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배심원토론은 관심을 청중에게 두게 되어서 교사의 마음이 편안하다. 자신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수업에 대한 회의를 갖지 않게 된다. 이러한 점은 교사가 실제 교실 수업에서 활용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셋째, 점수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점수가 뭐 별거인가 할 수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으로 시끄러워지기를 기피하는 교사 집단의 분위기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점수이다. 또한 점수화되지 않는 교육활동은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힘들다. 우리와 같은 학교 환경에서 점수화되지 않는 수업 내용을 학생들이 주의 집중하기는 힘들다. 물론 점수와 상관 없이도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호기심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는 점수라는 기본 줄기에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육활동의 기본 전제이다.

일반 토론 형식은 선발된 대표토론자만이 역할 수행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배심원토론은 모든 학생이 각자의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수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학생들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은 교사가 실제 교실 수업에서 활용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넷째, 번거로움이 없어야 한다. 사전에 디자인이 잘 되어서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하고,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학생들이 역할수행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점수와 연결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면 현장 실행 가능성은 현격히 줄어든다(차현정·송언근, 2013). 교사들이 학습지도와 생활지도가 교사의 본분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은 이상이다. 현실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일들을 쫓아가다 보면, 여유롭게 학습지도 준비를 하고 생활지도에 깊은 관심을 갖기는 힘들다. 따라서 준비할 것이 적어야 하고, 아예 없을수록 좋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배심원토론은 특별히 준비할 것이 없다. 다만 사전에 기본 토론의 틀을 디자인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학생들이 그 틀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1차시분 토론이 끝난다. 물론 대표토론자들은 준비를 많이 한다. 그런데 부담이 없다. 왜냐하면 보통 대표토론자들은 적극적이고 공부를 잘하거나 말 잘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토론 준비를 하기 좋아하는 유형들의 학생들이 많다. 나머지 청중(배심원)들은 특별한 준비 없이 토론 수업 당일 날 교실에 앉아 있어도 수업 진행에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주의할 것은, 토론 주제 선정은 세심할수록 좋다. 결국 이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준비되고 진행되어 만들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해도를 넘어서거나 아무런 흥미를 갖지 못하는 주제의 경우에는 수업이 잘 진행되기 어렵다. 그러나 토론 틀 디자인과 주제 선정이라는 것 정도는 물리적 시간을 별도로 들이지 않더라도 사회과 교사라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생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준비의 번거로움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이밖에도 교실 정착과 관련된 부가적인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이상 구현의 문제이다. 사회과 교사로서 각자가 갖고 있는 사회과의 이상이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과연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과의 이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사고가 교사의 내면에서 작동한다. 현실의 수업이 비록 너무 황폐하더라도 그러한 이상마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 이상적인 점에 부합하는가의 문제도 현실 정착 요인 중의 하나로 고려된다. 배심원토론은 평등한 교실, 나아가 평등한 사회라는 이상과

부합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다. 둘째, 재현 가능성의 문제이다. 아무리 좋은 다른 교사의 수업을 봤어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면 교실에 정착할 수 없다. 즉 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느 누가 해도, 최소한 사회과 교사라면 누구나 그것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배심원토론은 특별히 교사가 준비할 것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수 학생들 중심의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현가능성이 높다. 셋째, 다수의 수궁 문제이다.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하여 그 판단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다수가 수궁할 수 있어야 교실 정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많은 교사들이 수궁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새로운 프로그램의 생명은 끊이기 때문이다. 배심원토론의 경우는 일단 수업을 구경한 선생님들이 ‘별 준비없이 다른 수업에서 나도 할 수 있겠는 걸’이라는 쉬운 생각을 갖게 한다.

V. 결론

현재 학교를 개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유인책들이 존재한다. 승진가산점, 성과급 등에 있어서 연수 이수 학점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거의 모든 교사들이 여러 가지 연수 프로그램들을 매년 듣는다. 그러나 그러한 양에 비한다면 학교 현장의 변화는 너무 미미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프로그램만 개설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런칭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가 되어야 한다. 대학원 이수도 마찬가지이다.

필자 역시 매년 여러 연수를 이수하지만, 실제 현실에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다. 과장하여 말한다면, 연수는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점수 쌓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배심원토론은 흔쾌히 현장 속에서 사용하고 있다. 수년간 사용해 온 배심원토론을 들여다보면, 별도의 교실 통제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교실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 준비 없이 실행할 수 있다. 더구나 평가문제까지 해결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첫 인상의 문제로 귀결된다. 현실의 교사는 모든 조건을 다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한다기 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그저 만족스러운 정도의 일련의 선택들을 하며 교직 생활을 보낸다. 이러한 생활에 작용하는 것은 바로 첫 인상이다. 그리고 첫 인상의 기저에는 교사 집단 특유의 집단 심성(mentalité)이 작용한다. 교사의 본분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불만, 따라서 자신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어느 정도 스스로의 유예를 두는. 이런 교사에게 어떤 연수 프로그램 또는 연구 결과물이 활용될 수 있겠는가?

< 참고 문헌 >

- 김주환(2009). 교실 토론의 방법: 선생님과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즐거운 토론 시간, 개정판, 우리교육.
- 차현정·송언근(2013). 사회과에 대한 초등 교사의 부정적 인식의 특징과 발생 구조, **사회과교육연구**, 20(2), 125-145.